

이주와 젠더 그리고 서사*

— 영화 <국제시장>과 <그리움의 종착역> 비교분석

최 윤 영**

[초 록]

본 논문은 이주, 월경과 젠더와의 관계를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 두 집단은 같은 시기에 같은 국가에서 같은 국가로 대규모 노동 이주를 한 특수한 사례로서 소위 ‘지구화의 (여)성적 얼굴’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이주와 젠더의 관계를 먼저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에 한인 이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서사화의 사례로 영화 속의 재현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이때 분석의 키워드는 이주, 젠더, ‘세계가족’, 가부장제, 당사자성이며, 특히 서사(주체)의 문제, 즉 누구의 시각에서 이주의 문제를 서술하고 재현하는지, 그때 어떤 차이와 새로운 양상이 드러나는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주제어: 이주, 젠더, 재현, (초)민족주의, 국제결혼, <국제시장>, <그리움의 종착역>
Migration, Gender, Representation,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arriage,
Ode to My Father, Endstation der Sehnsichte

으로 말하자면 <국제시장>(윤제균 감독)이 민족주의, 가부장제, 정상 가족, 귀환 서사를 중심으로 이주를 구심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면, <그리움의 종착역>(조성형 감독)은 초민족적 세계가족, 여성 이주, 재이주를 재현하며 이주의 원심력적인 경관을 보여준다.

1. 이주, 국가, 그리고 젠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최근에는 노동 이주, 결혼 이주, 돌봄 이주 등의 형태로 여성도 이주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계화와 지구화의 또 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월경, 이주는 젠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남성이 국경을 넘는 것과 여성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줄까? 이제까지의 세계화 분석에 젠더라는 관점이 도입되면서 특히 여성의 세계화의 특징에 주목한 고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월경을 감행하는 남성과 여성은 그 노동 영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며 남성들이 주로 공장이나 건설 노동 현장에 배치된다면 여성들은 빈번히 가사노동이나 성 노동에 배치된다.¹⁾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은 사적인 영역에서 세계화를 관찰하고 있는데 특히 사랑과 돌봄의 영역을 주목한다.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젠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영역인데, 이주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재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벡은 다양한 동기로 인한 이주는 “특히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같은 여권을 소지하며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곳에 거주하는 일국적 정상가족”의 개념을 재고하게 만드는 “세계가족”

1) 정진성(2007), 「세계화와 이주의 젠더화: 결혼이주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 11.

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는 가까움과 땀, 평등과 불평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뒤섞이는 사랑과 돌봄의 새로운 현상이라 분석한다.²⁾ 예를 들어 장거리 연애, 지구화 시대의 임신과 출산(대리모, 난자 제공, 시험관 아기 등), 사랑과 돌봄의 지구화(유모, 가정교사, 간호사 등), 조부모의 장거리 사랑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호흐실트도 사랑과 돌봄 영역과 월경 현상들을 다루면서, 가장 큰 특색인 ‘전지구적 자본주의’하에서 여성 노동이 어떻게 평가되고, 또한 제 1세계와 제 3세계, 인종, 사회, 계급에 따라 여성 돌봄 노동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배분되고 의미화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³⁾ 이러한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이 자연스러워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으로의 결혼 이주뿐 아니라 노동 이주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현재에는 건설현장, 농어촌, 요식업뿐 아니라 그리고 돌봄과 사랑(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의 영역에서도 이제 이주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인 역시 국경을 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는데 과거 독일로 향했던 집단 역시 그러했다. 이때 월경이라는 현상에서만 젠더차별적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월경 재현의 서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2)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2), 이재원 외 역, 『장거리 사랑』, 서울: 새물결, p. 13.

3) Arlie Russel Hochschild (2001), “Globale Betreuungsketten und emotionaler Mehrwert”, *Die Zukunft des globalen Kapitalismus* (Hrsg. von Will Hutton, Anthony Giddens, übersetzt von Hanne Herkommer et al.), Frankfurt a. M., pp. 157-176.

2. 이주의 재현 가능성과 서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

2.1. 월경과 젠더: 공통점

유럽의 멀고 낯선 나라 독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대규모로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는 이주와 젠더라는 주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오랫동안 남성이 먼저 단신으로 이주하고 여성 이주가 뒤따르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었다.⁴⁾ 그러나 이와 달리 1963년부터 1978년까지 팔천여 명의 한국인 남성과 만 이천여 명의 한국 여성이 각기 정식 노동계약을 맺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주노동자로서 독일로 떠났다. 이 노동 이주는 이제까지는 주로 한국과 독일의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고찰이 되어왔다. 예컨대 이들을 가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자, 애국자로 보는 시각이 그러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1960~70년대 한국의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고국으로 송금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독일에서의 경력 후 제3국으로 진출하여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파독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⁵⁾

그러나 이 한국인의 집단 노동 이주는 이제 보다 큰 맥락, 즉 국제정치적 맥락이나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이주는

4) 정진성(2007), p. 11.

5) 이영석(2014), 「파독 근로자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담론과 국가적 예우」, 『독일어문학』 69, p. 127.

자본주의의 지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 3세계에서 제 1세계로 옮겨 가는 전형적인 노동 이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후 폐허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회 구조상 특정 분야(광업 및 간호 분야 등)에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외에서 이를 대규모로 조달했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은 독일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 집단 노동 이주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광부의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 일본, 인도,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노동 이주가 이루어졌고, 간호사의 경우도 많은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그러했다. 한국은 당시 저개발국가로서 빈곤,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그 외에도 민족적, 집단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주를 새롭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개인들의 다양한 월경 동기들이다. 이주의 근본적 목적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 한다면, 파독에 있어서 가장 큰 직접적인 이주 동기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독일을 경험한 후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장기 체류자가 되고 이민자로서의 다른 삶을 결정했다면, 이때 과연 더 나은 삶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할지, 삶의 궤적을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할 때가 되었다.

2.2. 월경과 젠더: 차이점

독일로 간 두 이주노동자 집단은 한국인의 기억에는 ‘광부와 간호사’로 항상 같이 호명되고 같이 기억된다는 특징이 있다.⁶⁾ 그러나 이 두 집단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찬경이 사진 에세이집 『독일에 간 사람들』에서 지적했

6) 최윤영(2008), 「Das koreanische Bild der Emigranten im Wandel」, 『독일어문화권 연구』 17, pp. 305-323.

듯, 직업과 젠더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많은 면에서 대조를 이루었다.⁷⁾ 대부분의 남성들은 광부로, 여성들은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학교생)으로 각기 다른 노동현장으로 파견되었다. 노동계약 기간 만료 이후의 삶의 기획에 있어서도 젠더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이들은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로 대체로 3년의 노동 계약을 맺고 독일로 갔지만, 독일 사회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따라 계약은 계속 연장되었고,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이민자’(Migrant)로 그 신분이 변했다. 이 점은 전후 독일 사회에 대량 유입된 터키와 유럽 출신의 다른 이민자 그룹과 공통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부들이 계약 종료 후 독일에 남고자 했을 때 전업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면, 간호사들은 대다수가 정년에 이르기까지 동일 직종의 노동을 계속하였고 정년을 맞아 연금생활자가 되었다. 독일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던 한국 광부는 약 1,400명이었지만 한국인 간호사들은 약 5,000여 명이었다.⁸⁾ 즉 광부의 경우 약 18%만 독일에 남았는데, 간호사의 경우 거의 40% 가까이 남았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이때 주목할 점은 독일에 남은 광부와 간호사의 1:3이 넘는 성비 불균형이다. 대부분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파독 당시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였고 이들 가운데 간호사들은 약 700여 명이 한국 광부와 결혼했으며, 약 3천여 명은 독일인과 결혼했다.⁹⁾ 즉 독일에 남기로 결정한 간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결혼 자체도 한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국제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 자료나 통계, 조사,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형

7) 박찬경(2003), 『독일로 간 사람들』, 서울: 눈빛 참조.

8) 이영석(2015), 「파독 근로자 출신 독일 교민들의 현황과 한국에 대한 의식」, 『독일어문학』 69, p. 127.

9) 이영석(2015), p. 131.

편이고 오랫동안 사실상 망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기억은 아스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생존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차츰 ‘소통적 기억’에서 ‘문화적 기억’으로 옮겨져 가는 시기이다.¹⁰⁾ 흑백사진이나 TV영상으로 자주 보도되는 탄광촌과 병원에서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고착되어가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대규모 국제결혼과 관련된 집단적 기억의 커다란 공백은 의아할 지경이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간호사들의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망각되어 왔을까? 그 이유를 최윤영은 한국사회의 강한 민족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 있다.¹¹⁾ 이들은 과연 독일에서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어떠한 삶을 영위해왔을까? 이 문제는 국제이동과 젠더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2.3. 월경과 젠더: 자전적 기억들

광부나 파독 간호사의 삶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박물관이나 대규모의 전시회 등을 통한 문화적 기억이다.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파독 간호사에 대한 담론의 큰 변화이며, 특징적인 것은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삶의 담론을 만들고 기억의 공백을 메꾸며 또한 고정된 담론을 수정하려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있었던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독일로 간 한국 간호 여성들의 이야기>(2017. 6. 27~9. 3)를 들 수 있다.¹²⁾ 이 전시회는 국경을 넘어간 여

10) 알라이다 아스만(2011)·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p. 13.

11) 최윤영(2008), pp. 313-315.

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젠더, 여성의 경계를 넘어’, ‘분단. 이념의 경계를 넘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이주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젠더와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차원을 고찰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미 70년대부터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온 독일의 한 한국계 여성단체는 『집에서』(Zuhause, 2006)라는 에세이 모음집을 독일에서 출판하였으며, 이후에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이름으로 그들의 또 다른 책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2014)을 한국에서 출판하였다.¹³⁾ 이전의 일의적인 민족주의적 서사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이 쓴 다양하고 주름과 굴곡이 많은 이주의 서사는 주체적이고, 강한 개척정신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자전 서사들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한국 사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를 향해서도 자신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당당하게 발화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의 파독 근로자에 대한 기억은 국가와 가족을 위한 경제적 기여와 희생을 강조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삶의 궤적, 예를 들어 국제결혼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도 한국 가족의 부양이라는 경제적 동기의 서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파독 결정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렸고 그들이 기획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¹⁴⁾ 이들은 자신을 가정이나 나라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가난하고 불쌍한 딸이나 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로는 거절한다. 무엇

12) 특히 이 전시회는 국가적 기억, 예를 들어 월미도의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광부, 간호사에 대한 전시와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이민사박물관 (2020), 「한국이민사 박물관상실전시 — 제3전시실 — <국경을 넘어 세계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웹사이트, 인천시박물관, 2021.1.29. <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203>.

13) Heike Berner · Sun-ju Choi (2006),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Berlin: Assoziation a; 재독한국여성모임(2014),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14) 재독한국여성모임(2016), 좌담, p. 245.

보다도 이들은 그간 독일에서 이루어 낸 성과들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사회가 모르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또한 책이나 전시회 제목에서 보듯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삶의 기록이 공적으로 논의될 가치가 있는 ‘역사’(Geschichte)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은 동시에 독일 사회를 향해서도 이주노동자로서의 간호 인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당시의 독일 사회에서 행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당대 경제개발로 인하여 인력 부족을 겪던 독일 사회와 경제개발에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¹⁵⁾ 나혜심 역시 이러한 노동이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의 의료권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적 복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⁶⁾ 조-루베 국남은 다음과 같이 간호사들이 독일 사회의 의료인력 부족 위기에 큰 도움을 제공했음을 상기시킨다.

“일반 독일 사람들은 60년대 중반과 70년대에 간호 분야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했던 관계로 독일 내의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폐업 직전이었던 위기상태를 기억하고 있을까? 한국, 필리핀, 인도 등지에서 불러들인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당시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음을 알고 있을까? 그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부족은 오늘날까지 독일의 간호의료계에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¹⁷⁾

15) Heike Berner and Sun-ju Choi (2006), pp. 118-119.

16) 나혜심은 이주노동자들의 간호, 의료, 요양 분야의 노동력 제공 덕분에 독일 사회가 국민에게 의료 분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나혜심(2012),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 서울: 산과글, p. 297.

17) 조-루베 국남(2014), 「내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 이주여성」,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p. 43.

당사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는 더 나아가 이민과 월경의 ‘재현’과 ‘재현의 서사’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광부와 간호사라는 대상그룹은 월경과 젠더라는 주제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시각 변화의 역사까지 관찰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 글은 <국제시장>(Ode to My Father, 2014)과 <그리움의 종착역>(Endstation der Sehnsüchte, 2009)이란 두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위의 두 영화는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집단의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기 때문이다.

3. 구심적 기억: 영화 <국제시장>

한국의 개봉관에서만 1,400만 명이 관람한 <국제시장>(2014)은 극영화로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¹⁸⁾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등장인물들의 개인사와 현대 한국의 역사를 명시적으로 서로 맞물리게 하여 관객의 공감을 얻은 데에 있다. 이러한 가족과 민족의 동일시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되는데 무엇보다도 현대사(6.25,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이산가족 찾기 등)와 주인공의 개인사를 중첩적으로 배치하고 의미화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은 베트남전과 광부 파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 자신의 몸으로 겪어내고, 이때 국가의 역사는 개인의 수난사로 환치된다. 특히 두 역사의 연결고리를 희생과 수난으로 잡아 관객의 집단적 감성에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영화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주은우는

18) 영화 <국제시장>은 2015년에, <그리움의 종착역>은 2009년에 개봉해 시간순으로 후자를 먼저 다루는 것이 보통이나 이 논문은 전자의 파독 근로자 재현을 하나의 전범 사례로 보고 이와 후자를 비판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 순서를 바꾸었다. <국제시장>은 윤제균 감독, 박수진 각본으로 JK필름이 제작한 126분 길이의 영화이다.

이 영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산업화의 역사”에 대한 일방적 서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⁹⁾ 그 외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이 영화의 노골적인 젠더적 관점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 재현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였다.²⁰⁾

영화는 서사의 형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플래시백 기법을 자주 활용하여 노년의 주인공 부부와 그들의 젊은 날을 교대로 보여주면서 시차를 활용하여 인과적 서사구조를 만든다. 즉 희생적 과거가 있어 현재가 가능했다는 서사적 틀을 만든다. 주인공 덕수는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라는 고모네 가게에서 피난길에 잃어버린 아버지와 여동생을 한평생 기다린다. 가부장제의 권력과 책임은 아버지에게서 어린 큰아들로 이양되었고, 이는 영화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계속 환기된다.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혹은 허공이나 하늘을 보며 아버지를 향해 대화를 던지는 것이다. 이 상상의 대화는 ‘현재-여기’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덕수의 노력을 보상하는 의미틀로 작동하고 또한 이러한 편집을 통해 관객의 공감 구조를 건드린다. 영어 제목조차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사>(Ode to My Father)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덕수가

-
- 19) <국제시장>에 대한 비판을 주은우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어른 세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이 없는 맥락에서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강조하는 <국제시장>의 등장은 반동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두 번째 갈래는 영화 <국제시장>의 역사가관이 함축한 정치적 성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비판이었다. 즉, <국제시장>은 기성세대의 희생을 강요한 원인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의 공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현대사를 산업화의 역사로만 일방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국가폭력과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은우 (2018), 「극영화의 역사 (다시) 쓰기. <국제시장>과 <포레스트 검프>의 경우」, 『사회와 역사』 120, pp. 195-234.
- 20) 류재형은 <국제시장>을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국가로 확대된 사례로 분석하였다. 류재형(2015), 「<국제시장>,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재현」, 『현대영화연구』 11, pp. 257-386.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사이면서, 동시에 영화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한 덕수의 삶에 바치는 헌사이다. 이 의미는 영화 밖의 관객들에게서 한국의 아버지들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로 확대된다.

3.1. 가부장/민족의 서사: 파독

영화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대중 서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때 가족과 국가를 위한 경제적, 희생자적 측면을 강조한다. 주인공 덕수의 개인적 소망은 큰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가려 했으나, 명문대에 입학한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이를 포기하고 파독 광부시험에 응시한다.²¹⁾ 그의 월경은 무엇보다도 가부장 의무의 이행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덕수 개인의 삶의 기획(부의 획득, 직업, 교육, 동경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광부시험은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덕수는 직업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탈락할 위기에 놓인다. 덕수가 택한 위기해결 방식은 놀랍게도 친구 달구와 함께 시험장에서 필사적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 노래는 면접관뿐만 아니라 시험장의 다른 수험자까지 모두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애국심을 자극한다. 더 나아가 이 극적인 미장센은 관객들까지 국민으로 소환하고 공감하기를 유도한다. 이러한 해결방식과 장면의 의미 부여는 다분히 한국적이다. 당시 고용주인 독일 회사는 경험이 많고 체력이 우수한 노동자를 원했지만, 대부분의 직업 광부들은 당시 진폐증 등으로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

21) 덕수와 달구가 전쟁 중인 베트남에 군속으로 자발적으로 가게 되는 것도 <꽃분 이네>를 인수하고 여동생을 시집보내기 위해서이다. 희생자의 효과는 덕수가 자신의 해양대 합격을 포기하는 정신적 차원뿐 아니라 또한 한쪽 다리를 상실하고 귀국하는 육체적 차원에서 증첩되고 있다.

문에 노동자 측인 한국은 건강하고 젊은, 그러나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을 송출한다. 그리고 상대적 고임금의 해외 취업은 실업 상태의 고등교육 인력들까지 대거 지원하게 만들고 송출국 한국은 대학생이나 대졸자가 독일에 광부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한민족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수용국 독일 사회는 그러나 이 고학력이라는 조건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과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때문에 덕수의 이 면접시험의 애국가 장면은 광부 파견 자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이 파견을 민족적, 국가적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한국 관객에게만 설득력이 있는 장면인 것이다. 여기에서 파독 근로자 기억에서 작동하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 문화적 기저가 드러나며, 이 민족공동체 담론은 타지에서 고국의 가족을 부양한 광부와 간호사를 근대화의 희생자이자 애국자로 이해하는 담론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희생양’ 효과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에피소드들 위주로 노동 현장을 재현한다. 광부들의 경우, 고되고 힘든 노동환경이나 위험했던 갱 사고를 묘사하고, 간호사들은 큰 체구의 노인 환자들의 입욕이나 배변을 처리하는 장면들, 시체를 닦는 노동 장면 속에서 그려진다.²²⁾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이전에 TV나 영화뉴스에서 주로 흑백 장면으로 재현되던 것을 컬러 영화로 재현한 것으로서 노동의 강도를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탄광 사고를 극적으로 사건화하고 있다. 지하 막장에서 발

22) 한국과 독일은 간호제도가 달랐는데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간호업무만 담당했던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환자 돌봄까지 담당하는 차이가 있다. 초기에 여러 이유로 파독 간호사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체를 다루는 노동 등은 일반적으로 겪는 일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어났음을 상기하면 영화가 전달하는 간호사 노동 재현의 초점은 그들의 노동강도와 희생 정신을 강조를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혜심(2012), p. 138 이하 참조).

생한 탄광 사고와 매몰된 광부라는 사건 자체가 이미 극적인데, 여기에 영화는 영자의 영웅적 행동을 더하여 극적 효과를 끌어올린다. 독일 사용자 측은 지하에 가득 찬 가스 때문에 구조를 포기하지만, 영자는 감독관에게 독일어로 구조를 요청한다. 호소가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한국인 동료 광부들을 향해 우리말로 구조를 외친다. 이에 광부들의 동료애와 애국심이 자극되어 위험천만인 막장으로 내려가 동족 주인공을 구조한다. 영화는 바로 이전에 지하갱도 안에서 덕수와 달구가 서로 헌신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남성들의 형제애와 우정을 강조한 바 있다.

3.2.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개인 서사와 민족 서사의 긴밀한 연결은 정주영, 앙드레 김, 남진 등의 코믹한 보조 인물의 등장에서도 엿보인다. 이 배역들은 영화에서 감초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영화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기본 성향과 조응한다. 영화가 지시하는 민족 담론과 국가 담론은 무엇보다도 족내혼의 고집에서 드러난다. 영화 속에서 독일에 간 광부들은 한국 간호사를 사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영화는 이때에도 스테레오타입으로 전해지는 에피소드들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광부들이 간호사 기숙사에 무작정 찾아가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벨을 눌러 교제를 시도한다. 파트너로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 여성이라는 정체성인 것이다. 영화 속 덕수와 영자의 결혼은 700여 쌍의 한국인 결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더 많이 행해진 한국인과 독일인의 국제결혼은 다루지 않는다. 덕수는 라인 강가에서 <로렐라이>를 부르고 있는 영자에게 반하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영자는 덕수와 달리 과거가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당시 간호사들에 대한 일반적 서사 속에서, 즉 가난한

집안의 장녀에 동생들이 많아 월급을 모두 한국으로 부치는 상황일 거라고 덕수에 의해 추측만 되고 영화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여성으로서 다소 독립적 행보를 보였던 영자 역시 정상 가족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포박 당하는데, 혼전 임신 때문에 덕수를 찾아오며 이는 급작스런 결혼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실제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1/3은 독일에 남고 1/3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계속 더 이주를 가고 나머지 1/3이 귀국했으나, 영화는 타지로 노동 이주를 나갔던 국민의 무사 ‘귀환’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인 현장감독을 상대로 담판을 벌일 정도로 당찬고, 결혼을 거부하고, 독일에 남았던 영자의 삶의 궤적은 ‘혼전 임신’이란 테우스-엑스-마키나적 사건을 통하여 구질서로 복귀하고 만다. 이 임신은 혈통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가부장제와 순혈 민족주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가족과 집단 공동체를 확인하는 결혼식장에서 영자는 독일의 민요 <로렐라이>를 불렀다가 조롱을 받고, 결국 대중가요 <노란 샤쓰의 사나이>를 부르고 하객과 같이 막춤을 추며 동화된다. 영자는 이후 집과 가정이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공간 안에서만 등장한다. 더불어 영화는 “1966년 1차 귀국”을 자막으로 알려 광부, 간호사의 파견사를 무사귀환으로 마무리 짓는다. 해외로 파견 나갔던 민족의 아들과 딸은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하고 이들은 족내혼으로 안정되게 혈통을 잇는다.

이 영화에서 국제적인 사랑은 덕수의 친구인 달구를 통해서 주변부적으로 다루어지며 더구나 진지한 방식이 아니라 코믹풍으로 이루어져 의미가 반감된다. 달구는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돌리며 외국 여성의 풍만한 육체와 사랑에 대한 환상을 키우고 이 때문에 독일로 가고자 한다. 기숙사에서 열린 광부와 간호사의 댄스파티에서 달구는 육감적인 사감에게 끌린다. 달구와 사감의 관계는 정서적 교감이나 진지한 교제 없이 그려지고 이는 한국 남성들의 서양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와 호기심이 충족되는 과정 속에서 소유욕, 정복욕을 자극하는 카사

노바의 서사로 재현된다. 이러한 국제적 결합은 베트남에서도 반복된다. 달구는 미군 위안소를 공공연히 방문하고 베트남 직업여성들과도 접촉한다. 한 시골 마을에서 덕수와 달구는 위협에 처한 한 젊은 베트남 여성과 가족을 구해 주는데, 달구는 귀국 후 이 여성과 결혼하여 최초의 한국-베트남 커플로 신문에 보도된다. 이 예외적인 국제결혼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국가 간의, 남녀 간의 경사진 호혜 관계 속에서 ‘구원서사’의 형태로 재현된다.²³⁾ 이 ‘행복한’ 결합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인 군인들과 군속들이 저지른 수많은 (성)범죄와 현재에도 남겨진 많은 라이파이한을 생각해본다면, 한국 역사에서 해외파견과 관련된 그들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왜곡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 이주자로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중개를 통해 한국 농촌에 와서 겪는 문제까지 생각해본다면, 영화는 더욱 보고 싶은 민족사의 일면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3.3. 귀환의 서사

영화의 오프닝 배경장소는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 상점이다. 이 꽃분이네는 덕수 가족의 역사이며 동시에 한국 민족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덕수가 피난길에 가족과 찾아간 고모의 집이고, 고모가 사망하자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전쟁 중의 베트남으로 나가며 또한 부산의 재개발 불에도 불구하고 덕수가 끝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 이 가게는 아버지와 동생을 다시 만나야 하는 가족 재결합의 장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과거사가 현재의 장소성을 만든다. 덕수와 영자는 많은 실항민들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부산을 떠날 때에도, 후

23) 이러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일방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입파워먼트, 네트워킹 등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시각의 연구들이 행해진다.

은 독일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이산과 산포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아버지와의 약속 장소로 다시 귀환한다.

영화는 가족 찾기 주제를 국경을 넘어 입양 서사로 확대시키며 공간상으로는 미주까지 확장된다. 입양 서사도 구심력의 서사와 원심력의 서사를 모두 취할 수 있으나, 영화는 구심력의 서사를 택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택한다. 토마스 휘비네트가 저서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에서 주장하듯, 최근의 입양 담론은 보호자 담론에서 입양인의 당사자 담론으로 크게 변동하여 “입양된 나라에서의 불행한 삶,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 생모와 한국문화에 대한 갈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초국적 시점과 “전지구적 인종 전경”을 강조하는 추세이다.²⁴⁾ 하지만 영화는 입양 서사에서 가족 개념 속에 투영된 순혈 민족주의라는 보수적 관점을 고수한다. 19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덕수는 고아원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된 막내 여동생 막순을 찾게 된다. 현재에도 성인이 된 많은 입양인들이 친모와 가족을 찾아 한국으로 오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것과 달리, 영화 속의 가족은 재결합에 성공하고 영화를 해피엔드로 이끈다.

4. 원심적 기억: <그리움의 종착역>

조성형의 영화 <그리움의 종착역>(Endstation der Sehnsüchte, 2009)은 간호사 집단에 대한 매우 다른 재현을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다. 이 영화는 그간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잊혀진 개인사를, 그들의 목소리를 전면으로 내세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24) 토마스 휘비네트(2008), 뿌리의 집 역,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서울: 소나무, pp. 299-300.

앞의 <국제시장>과 비교해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조성형의 영화는 장르상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에서 앞의 극영화와 차별점이 있고 장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늘 함께 이야기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공통된 이야기 아니라 간호사 이야기를 전면에서 다룬다. 셋째, 영화는 간호사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초국적 국제결혼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3쌍의 한국 여성과 독일 남성 부부(영자와 아르민 타이스, 춘자와 빌리 엔겔프리트, 우자와 루트비히 슈트라우스-김 부부)의 삶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룬다. 영화는 제목 크레딧이 올라가기 이전에 흑백 영상으로 간호사의 파독 장면을 역사적 배경으로 보여준다. 이후의 진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이 이 세부부의 현재 삶을 번갈아 옴니버스식으로 보여주고 후반부는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간호사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과거를 전달한다. 넷째, 이 영화는 독일로의 이주는 과거의 배경을 이루며, 한국 남해 독일마을로의 재이주가 주요 내용이다. 세 쌍 모두 한국 출신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 정년퇴직 때까지 일하다가 은퇴 후에 독일인 남편과 함께 남해의 독일마을을 지어 재이주를 감행했다. <국제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까지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담론 속에서 논의된 공식적, 문화적 기억과는 다른, 당사자들이 직접 전하는 개인적, 의사소통적 기억을 재현한다는 데에 있다.²⁵⁾

4.1. 복수의 파독 이야기들

한국계 독일 감독 조성형의 영화 <그리움의 종착역>은 한국 간호사의 이주와 재이주를 다루고 있다.²⁶⁾ 워스는 이주를 결정하는 요소들

25) 최윤영(2008), p. 317.

26) 이 영화는 관객 동원이란 면에서 보면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앞의 영화가 1400

로 개인적 특성, 가구적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들고 이를 세분화하여 고찰한다. 특히 이민으로 인한 이득을 고려한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이 중시되는데 이는 이민 의도를 형성하고 이민 행동으로 이어진다.²⁷⁾ 조성형의 영화 재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파독 간호사들이 삶의 서술에 있어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적 태도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노동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간호사라는 당당한 직업을 가진 이주노동자로 인식하며, 노동 계약이 끝났을 때 돌아오지 않고 자발적 결정으로 독일에 머물렀다. 이러한 자발성은 삶의 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국제결혼을 결정하였고 독일에 남아 ‘세계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웠다. 간호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부부만 남는 ‘빈 둥지 기간’에 접어들자 이들은 독일 혹은 유럽 시민으로 동화되지 않고 또 다른 이주를 감행하는데 이번에는 독일인 남편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 남해라는 새로운 마을에 ‘독일마을’을 일군 것이다. 주체성, 자발성과 합법성의 측면에서 간호사들의 국제결혼과 이민은 최근 한국에서 급증한 경제적 동기에서의 결혼 이주의 양상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후자는 대체로 상업적 형태로 결혼이 중개되어 주로 신부들이 한국으로 와서 낯선 문화뿐 아니라 언어 문제, 도농 차이, 연령 차이, 시부모와의 합가, 자녀 교육 등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어 자주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된다. 노동 이주의 경우도 많은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성의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²⁸⁾ 파독 간호사들은 호호쉴트가 지적한 바 있는 “가상의 자

만 명이 본 소위 ‘국민영화’이고 블록버스터인데 반하여, 후자는 불과 5만 명의 관객 수(독일)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조성형 작품의 특색과 주제에 대해서는 최윤영(2020), 「‘장소’에서 ‘공간’으로 — 조성형의 고향 영화 삼부작」, 『독일어문학』 22, pp. 31-52 참조.

27) John R. Weeks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Learning.

28)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2), p. 152.

기”(hypothetisches Selbst)를 중요하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크다.²⁹⁾ 가상의 자기란 몸은 타국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떠나온 고국에 정향되어, “내가 한국에 있다면”, 혹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하고 자신을 고국에 있다고 상상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성형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은 바로 대조를 기본원칙으로 한 편집에 있다. 영화는 세 쌍의 부부 이야기를 주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대조적인 장면들로 나누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흑백과 컬러 화면으로 대비되고, 독일과 한국이 대조되며, 또한 한국 내의 풍경들도 과거와 현재로 혹은 독일마을과 한국 마을로 구분 지어 편집된다. 특히 독일마을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의 ‘지금-여기’의 풍경들을 여러 차례 삽입하여, 매번 앞뒤의 다른 장면들과 구분되는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영화는 제목 크레딧이 올라간 이후 신중현의 흥겨운 음악과 더불어 아름다운 남해 관광지 독일마을에서의 세 부부의 노년의 삶을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배경으로 하얀 벽, 빨간 지붕, 잘 가꾼 푸른 넓은 정원이 이국적으로 펼쳐지는 마을은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간호사 부부들은 사진을 찍으러 무단으로 침입하는 관광객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이들에게 독일식 프라이버시를 가르치는 모습은 행복한 고민을 가진 듯 보인다.

영화는 이러한 파독 간호사에 관한 새로운 전경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며 한국 사회가 몰랐던, 그럼으로써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주사를 낫설고, 새로운 목소리들로 채운다. 시끄러운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며 간호사 세 명에 대한 조용한 집중 인터뷰를 배치하는데,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과거 이야기들은 앞서의 행복한 노년이나 마을의 유복한 경관이 전달하는 이미지와는 상

29) Hochschild (2001), p. 161.

반되는 부분이다. 전달되는 과거사는 관객에게 그 낯설고 새로운 서사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는데, 파독 간호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이해와는 상충된다. 이때 이들의 목소리는 자기 삶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보고하는 것, 즉 발화의 ‘당사자성’(Betroffenheit)으로 인하여 진실성과 개연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이 목소리들은 간호사 월경의 동기를 앞선 영화처럼 경제적인 측면이나 민족/국가주의 측면에서만 찾는다면 매우 단선적이고 피상적임을 주장한다.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는 당대 한국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경 동기를 한편으로는 당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정, 불공정, 권위주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성적 불평등, 부정부패, 그리고 분단 현실, 군부독재 등에서 찾는다.³⁰⁾ 다른 한편으로는 전지구적으로 관찰되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개인(주의)적 동기나 “자유에 대한 갈망”에서 발견한다.³¹⁾ 최근의 이동과 이주 이론들은 경제적 동기보다 자유와 역량이라는 요소를 보다 중시하는데, 이때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선택,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개인 역량의 강화, 곧 자유의 확대”로 본다.³²⁾ 역사학자 나혜심도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에서 가족과 국가를 떠난 여성들의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주체적 의지와 희망을 강조한다.³³⁾ 간호사들은 도독행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발견한 것이다. 박-라이니히 정숙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의 기회,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점을 파독 동

30) 재독한국여성모임(2014), p. 245 이하.

31) Ulrich Beck (2001), “Eigenes Leben in einer entfesselten Welt”, *Die Zukunft des globalen Kapitalismus* (Hrsg. von Will Hutton, Anthony Giddens, übersetzt von Hanne Herkommer et al.), Frankfurt a. M.: Campus, p. 197; 재독한국여성모임(2014), p. 242.

32) 신혜란(2016),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서울: 이매진, p. 39 참조.

33) 나혜심(2012), p. 213.

기로 꼽는데, 외국으로 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길”로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가난한 가정 출신의 사람이 외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서술한다.³⁴⁾ 낯선 타지에서 이들은 삶의 기획에서 더 많은 자유와 자율권을 누리고, 독일의 무상 고등교육 시스템의 혜택도 이들이 스스로 이민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 외에도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은 사랑 서사와 관련되는데, 간호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낭만적 사랑’ 담론을 소환하여 주체성을 강조한다. 영화는 세 쌍의 국제결혼한 부부의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그간 한국 사회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망각하였던 독일에 갔던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화 전반부에서는 젊은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독일에서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도정들을 보여준다. 이 사랑과 결혼의 재현 서사는 기든스가 이야기한 바 있던 근대의 낭만적 사랑과 ‘조형적 사랑’(plastic lov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숙은 자신의 개인 이력에서 낭만적 사랑을 언급한다(59:00). 즉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사랑하던 남성이 광부로 독일에 왔기 때문에 쫓아왔고 그가 이미 결혼을 해버렸음을 알고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춘자의 경우도 자신의 결혼 동기에 대해 마찬가지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펼쳐놓으며, 개인적 호감과 사랑, 낭만적인 드라이브와 무도회 등으로 전형적인 유럽식 개인들의 사랑 서사로 설명한다(34:00). 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가부장적이고 애정이 없는 정략결혼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서 사랑 서사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남편 루드비히는 당시를 이주노동자의 세금 정산과 관련된 합법성과 불법성의 경계에서, 즉 주류사회가 이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기억하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독일과 한국, 공무원과 이주노동자, 주류사회와

34) 박-라이니히 정숙(2012), 「편안한 의자」,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p. 43.

주변부 사회 등의 요소는 사건을 바라보는 차별적 지점을 드러낸다. 우자의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사랑이나 결혼 이야기는 거의 없고 과거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두웠던 기억이 주로 이야기된다. 우자는 낭만적 사랑을 반대적 측면, 즉 부정적 측면에서 언급한다. 한국에서의 결혼이 개인 간의 친밀감이나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고, 행복하지도 순탄치도 않았기 때문에 떠나왔음을 털어놓는다. 남편은 결혼 이틀 만에 서울로 가버리고 명절에만 내려올 뿐 시어머니와 자녀와 같이 산 과거의 삶은 여러 측면에서 불행했다. 우자는 독일행의 원인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 찾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독일행을 자원했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독일행은 일종의 돌파구, 해방을 의미한다.

4.2. 장거리 사랑과 ‘세계가족’

간호사들의 주체적 태도는 결혼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며 <그리움의 종착역> 서사의 가장 중심적인 소재 역시 국제결혼에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그리움의 종착역>에서는 전면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즉 기존의 파독 이야기가 담고 있는 민족 중심적, 국가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조성형 감독의 영화는 혼종적, 다문화적, 초국가적, 탈경계적 시각에서 파독 간호사의 다양한 개인 서사들을 전개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국제결혼은 한인의 해외 이주와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인 세계화의 미래를 구상해보고 거꾸로 한국 사회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고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직도 당사자들이 소수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털어놓는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보다 포괄적 시각에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국제결혼이 주제화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사회의 단일 민족과 순혈주의, 그리고 여성의 순결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들 수 있다.³⁵⁾ 이주와 이민이라는 사건 자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국경을 넘어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함으로써 낯선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 결혼 등을 통해 섞이고 동화하고 변모하여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과 낭만적 사랑은 최근에 와서야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³⁶⁾ 피압박자로서의 어두운 한국 역사로 인하여 폭력과 억압 속에서 이루어진 국경을 넘는 결합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국의 대외 수난사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 작동하는 순혈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가 민족의 대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의 ‘순결’을 요구한 데 따른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간호사들의 삶은 있는 그대로 발화될 수 없었고 그러한 점에서는 서벌턴의 ‘발화 불가능성’과도 연결된다.³⁷⁾ 그러나 최근의 지구화, 세계화와 더불어 일어난 한국 사회의 개방과 더불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그리움의 종착역>은 이러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다국적이고 다양하며 혼종적인 삶의 서사를 보다 열린 시각에서

35) 간호사들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일민족은 인종차별주의”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재독한인여성모임(2014), pp. 274-277.

36) 앞서 이야기한 자서전을 독일에 출판했던 한국의 간호사 출신 여성단체는 최근에 후속 이야기를 출판하였다(재독한국여성모임(2014) 참조; Chajo An (2006), “Der lange Weg zu mir selbst”,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Hrsg. von Heike Berner and Sun-ju Choi), Berlin: Assoziation a, pp. 118-119).

37) 하우스바허는 “여성이주자는 말할 수 있는가?”(Kann die Migrantin sprechen?)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세계화 시대에 여성이주자들이 발화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Eva Hausbacher *et al.* (Hrsg.)(2012), *Migration und Geschlechterverhältnisse*, Wiesbaden: Springer.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세계가족 속에서 다양하게 배치된 관계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³⁸⁾

간호사들의 독일행은 정착지에서 “끌어당기는 요인”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내모는 요인”까지 복잡하게 관찰해야 함을 보여준다.³⁹⁾ 후반부의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월경의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트라우마 표현의 울분의 강도는 캐루스가 이야기하는 소위 “상처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⁴⁰⁾ 이때 이 상처가 모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혼의 간호사들이 청춘에 독일에 갔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우자는 영화에서 기혼자로서 독일에 갔음을 고백한다. 당시 지방에서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자녀도 둘이 있었지만 한국에 남겨놓고 독일로 일하러 간 것이다. 한편으로 그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식을 버리고 간 어머니는 귀환 불가’라는 시집의 비난은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고국에 남겨진 아이들은 가부장적 상황에서 결국 시어머니와 고모 등에게 맡겨져 성장한다. 결국 모자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우자는 남겨놓고 간 자녀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다(1:07:01). 이는 개인적 고통일 뿐 아니라 지구화 시대에 기혼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치르는 비싼 대가이다. 호흐실트는 세계화의 여성적 풍경 중 ‘모성’ 딜레마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구화 시대의 여성 돌봄 인력의 월경은 칼 막스가 지적한 것처럼 단지 자본의 이동이나 재분배를 가져온 것만이 아니고 감정, 사랑, 돌봄들의 “부가가치”(Mehrwert)의 대상 전이로 인하여 원래의 돌봄 대상에게는 결여를 낳았다고 본다.⁴¹⁾ 대체로 여성들

38) 올리히 백·엘리자베트 백-게른스하임(2012), p. 220.

39) 신혜란(2016), p. 38.

40) 김정하: 트라우마와 정동. 비평과 이론17 (2014), p. 48.

41) Hochschild (2001), p. 162.

이 유모, 가정교사, 간병인, 간호사 등의 돌봄 노동을 담당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가면 노동의 특성상 떠나온 가정에는 돌봄의 공백이 생겨난다. 즉 제 1세계의 고용자들은 이주여성들의 노동뿐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라는 부가가치를 대가로 얻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었던 제 3세계의 노동자의 아이들은 이러한 돌봄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조부모나 친척 등 대안 돌봄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주했는데, 결국 돌봄의 공백으로 인하여 좋은 엄마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⁴²⁾ 백도 『장거리 연애』에서 ‘돌봄의 국제화’로 인해⁴³⁾ 서구 사회의 중산층 여성들은 낯선 나라에서 온 여성 인력의 돌봄 노동에 힘입어 직장가정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떠나온 가족과는 이별과 단절을 겪게 되는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이중적 현실을 지적한다.

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혼자로서 월경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의 표현방식과 그때 터져 나오는 분노의 강도는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후반부의 인터뷰 전까지 춘자는 자의식과 만족감이 강하며 독일인 남편과 같이 한국의 절이나 사우나 등을 찾는 여유 있고 유복한 노년의 삶 속에서 등장했었다. 또한 유일하게 한국의 가족들이 방문해서 명절 행사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가운데 그려져 이들의 재이주에 ‘귀향’과 ‘가족 재결합’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부여했었다. 그러나 영화 말미에 산속 조용한 장소로 가서 감독에게 털어놓는 과거사는 이러한 현재의 모습과 정반대의 대조를 이룬다. 춘자는 자신의 도둑 동기를 한국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독일로 달아나버렸다.”(1:20:39)라고 털어놓아 관객들을 놀라게 만든다. 춘자는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뿐 아니라 시집의 노골적인 권위주의, 아들 선호사상과 가계 계승 압박이 월경의 원인이었음을 토로한

42) Hochschild (2001), p. 164.

43) 올리히 백·엘리자베트 백-게른스하임 (2012), p. 200 참조.

다. 딸을 낳은 후 압박은 더욱 거세어졌고 남편이 바람까지 피자 결국 탈출구로 독일에 갈 결심을 하지만, 양육권을 빼앗은 남편은 춘자에게 앞으로 아이를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한다. 그러나 아이는 남편의 새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낸 춘자는, 루드비히와 재혼할 때에 아이를 독일에 데려온다는 약속을 맺는다. 딸을 데려오는 일은 전남편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당시 한국의 가부장제에서 외국으로 가 재혼한 여성이 고국의 자식을 데려가는 것은, 스스로의 고백처럼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와 단호함이 필요한 일이었다. 남성 가부장제는 그 체제 안에 머물 때에는 모성을 신성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이혼 등으로 여성이 이 체제를 벗어날 때에는 모성을 부인하고 부계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우자에게 그 결과 “모성애는 갑자기 불안정하고 논란이 분분하며 투쟁해서 얻게 되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자원이 된다.”⁴⁴⁾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주의 동기를 다루고 있고 여성의 월경이 전통 사회의 모성 표상과 충돌될 때 이에 어떻게 대처했고 대항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동적 울분과 분노는 파독사의 흐름을 수정하고 있다.

4.3. 초국적 이동

국제결혼한 간호사 부부들의 귀국은 ‘귀향’의 서사가 아니라 계속적인 ‘이주’와 ‘혼종’ 혹은 ‘변위’(displacement)의 서사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두 주인공이 무사히 부산으로 귀향하고 다시 한국민으로 소속되고 있다면, <그리움의 종착역>에서 세 간호사도 마

44)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2), p. 204.

찬가지로 한국으로 오게 되지만, 이들은 독일 국적을 가진 이주자로서 독일인인 남편과 돌아와 그들만의 초국적인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간호사들은 독일/유럽에 남아 동화되지도 않았고, 귀국 시에도 다른 귀국자들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로 가지도 않았으며 또한 떠나온 고향이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한국 간호사들의 삶과 장소에 대한 역동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남해마을은 장소가 그 역사성 등을 통하여 소속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이를 만들어 내는, 즉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파독 간호사에 국제결혼 부부라는 공통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남해마을은 한국 땅 남쪽 끝의 시골에 위치하나, 독일어를 말하고 독일식으로 일상과 문화가 영위되는 특수한 마을이다. 즉 독일마을은 단순한 귀향 장소가 아니라 이들의 과거사, 사회적 소속성,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반영하는 역동적 장소이다. 도린 매시는 공간을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장소를 이러한 관계들의 특수한 절절지로서, 사회적 관계와 이해들의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한 조합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장소뿐 아니라 장소 너머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⁴⁶⁾

독일마을은 이동을 감행하는 자들에게는 독일의 연금생활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환경으로 의미화되어 있다.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후가 안정된 이주자들은 그들의 죽음까지 이 장소와 결부시켜 고려하고 있으며 독일식 공동묘지와 수목장을 마을 가까이에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장소 내에서의 이들의 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45) 이 작품을 ‘— 함의 문화’(doing culture)의 연속선상에서 ‘고향 만들기’(making Heimat)로 해석한 예로 최윤영(2020)을 들 수 있다.

46) 도린 매시(2015),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45.

물리적 거리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들 가족 내의 친밀성, 사회적 소속성과 이웃 관계는 독일마을 내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외부 지역, 예를 들어 바로 인접한 아래 한국 마을과는 이어지지 않으며 인적 접촉 관계도 거의 없고 긴장 관계에 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자주 이 대조되는 두 마을을 한 카메라 컷 안에 잡아 그 이질성, 타자성 그리고 경계를 강조한다. 또한 독일 마을은 귀향 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다. 여기에서 이주자들은 새로운 삶을 기획하며, 농업과 어업 위주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까운 아랫마을의 주민이 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든 낯선 관광객들을 상대한다. 이제 독일마을은 은퇴한 부부들의 조용한 휴양지가 아니라, 현대인의 인기 있는 관광지로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독일 마을은 ‘독일식’ 마을로 관광객들에게 소비된다. 그리고 이 표상은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기억이 독일의 탄광촌과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수정하는 장소성으로 기능한다.

이 초국적 장소성은 영화 속 세 부부의 상이한 자아 및 타자 정체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내부적 편차도 크다. 예를 들어 영숙 스스로 이야기하듯 한국은 단지 그녀의 출생지일 뿐이고 자신은 철저히 독일인이라고 주장한다. 남편과의 티격태격 속에서도 그녀는 1그램의 오차도 없이 60그램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독일식 아침 빵을 만들고 의식주에 있어 ‘독일식’ 삶을 보여주고 여가 시간에도 혼자 독일 가곡을 연습한다. 남편 아르민 또한 자신이 28년간 사용했던 콘크리트 제조기를 한국에 들고 와, 자신의 집을 순수 독일 집으로 짓고 보수한다.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독일성’을 위하여, 이들은 평생의 직업과 달리 소시지와 빵을 만들고 독일식 펜션을 운영하게 된다. 춘자의 경우 보다 혼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부는 첫 장면에서 한국의 전통 사찰을 찾아 기도를 드리는데, 스님에게 죽비로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며 소원을 빌고 한국식 찜질방을 찾고 차 안에서도 이미자 노래를 듣는다. 여동생 부부가 찾아오자 같이 한국식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같이 낚시 등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 춘자 집의 내부 인테리어는 무거운 독일 떡갈나무 장뿐 아니라 한국식 자개장롱도 같이 비치되어 있다. 명절이 되면 이들은 독일식 카펫 위에서 한복을 입고 가족끼리 큰 절을 나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서로 엇갈리는 시각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데, 춘자가 뜨거운 찜질방을 천국이라 묘사하면 남편은 이를 부인하는 식이다(18:30).

과거 독일에서는 한인 이주노동자가 주류문화인 독일문화에 일반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했었고 이러한 이주자/망명자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 압력을 기욤 르 블랑은 철학적으로 정리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망명자는 생존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한다. 일 때문에 생겨나는 뿌리 뽑기는 선형적으로 무한하다. 그것은? 모든 친근함을 지움으로써 보상받지 못한 상실을 창출하며 고국과의 격리, 모국어와의 단절, 또 그가 살던 곳과의 지리적 단절을 낳기 때문이다. 결국 주체적인 모든 삶의 형식, 일상적 삶 전체가 멀어지고 상실된다.”⁴⁷⁾

이에 반하여 간호사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남편들에게도 적응과 동화의 압력이 완화된 이주자의 환경을 적극 마련해준다. 독일인 남성들에게 한국은 낯선 삶의 공간이고 새로운 사회이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동일성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상적 삶의 공간적 배치, 관계, 그리고 삶의 관계나 형식도 독일식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노년에 특히 중요한 의료 서비스와 의식주 서비스는 한국인 아내에 의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국 부인들은 아내

47) 기욤 르 블랑(2014), 박영옥 역, 『안과 밖. 외국인의 조건』, 서울: 글항아리, p. 83.

로, 간호사로, 삶의 동반자로, 통역관으로, 관광안내원으로 다중적 역할을 맡아 남편의 일상 삶이 독일에서처럼 영위되도록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기욤 르 블랑이 지적했던, 또한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겪었던 “자기 상실”이나 “삶의 형식의 변형이나 상처”를 거의 입지 않고 장거리 이주가 가능해진 것이다.⁴⁸⁾ 이러한 사례는 지구화 시대의 이주와 관련해볼 때 흥미로운데, 돌봄 노동의 안정성에 기반하여 다시 장거리 이주를 감행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동 거리의 장단이 점차 의미를 잃는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 압축으로 인한 거리의 의미 상실과 맞닿아있다.⁴⁹⁾ 이러한 두 문화 사이가 섞이고 동화되고 또한 새롭게 분절하는 공간에 독일 마을의 세 부부의 재이주 풍경이 있다.

5. <국제시장>과 <그리움의 종착역>, 귀환과 이산의 이주 서사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국제시장과 독일마을은 부산과 남해로서 한국의 남단 끝으로 물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장소이다. 그러나 이 장소가 가지는 사회적 관계와 의미를 고려해보면 거리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국제시장’은 ‘국제’와 ‘시장’, 두 단어 모두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교류, 교환을 뜻하고 있지만, 실제 영화는 가족과 민족을 상징하는 장소로 재현한다. 북한을 떠난 실향민에게 부산의 국제시장은 임시 정착지였으나 <꽃분이네> 가게는 독일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장소이다. 영화는 민족의 일시적 이산을 이야기하나 종국적으로는 귀환을 주제화한다. 반면에 <그리움의 종착역>의 배경이 되는 ‘독일마

48) 기욤 르 블랑(2014), p. 82.

49) 도린 매시(2015), p. 271.

을’은 특정 외국과 고향 공동체를 연상시키는 ‘마을’이라는 어휘를 합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주와 공간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삶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 출신의 간호사들은 독일로 가서 ‘국제’ 결혼을 하였고 세계가족을 만들고 그 일부는 독일에 두고 왔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제2의 이주를 감행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일마을은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기억이 독일의 탄광촌과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서사를 수정하는 장소로서 새로운 ‘독일성’, 새로운 이민 자상을 대변한다.

이주와 젠더라는 시각에서도 두 영화는 대조적이다. <국제시장>은 한국 사회의 고정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반복하고 이를 삶의 서사로 재현하여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리움의 종착역>은 그간 한국 사회의 기억에서 부재했었던 국제결혼, 세계가족을 주제화한 한국계 간호사들의 ‘다르고 낯선’ 이야기들을 직접 발화시킨다.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주자로서, 노동자로서, 간호 인력으로서, 혹은 국제결혼을 한 아내로서 이들은 한국 사회의 기대 지평과 다른 삶, 정체성, 사랑, 결혼,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아 이주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각의 경계를 크게 확장시킨다. 그간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적으로 채색되었던 기억들의 빈 공간을 채우고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 저】

- 김정하(2014), 「트라우마와 정동」, 『비평과 이론』 17, pp. 47-64.
- 나혜심(2012),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 서울: 산과글.
- 류재형(2015), 「<국제시장>,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재현」, 『현대영화연구』 11, pp. 257-386.
- 기욤 르 블랑(2014), 박영옥 역, 『안과 밖. 외국인의 조건』, 서울: 글항아리.
- 도린 매시(2015),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숙 박-라이니히(2012), 「편안한 의자」,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pp. 80-94.
- 박찬경(2003), 『독일로 간 사람들』, 서울: 눈빛.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2), 이재원 외 역, 『장거리 사랑』, 서울: 새물결.
- 신혜란(2016),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서울: 이매진.
- 알라이다 아스만(2011),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 문학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 이영석(2015), 「파독 근로자 출신 독일 교민들의 현황과 한국에 대한 의식」, 『독일어문학』 69, pp. 127-152.
- _____(2014), 「파독 근로자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담론과 국가적 예우」, 『독일어문학』 64, pp. 219-240.
- 재독한국여성모임(2014),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 정진성(2007), 「세계화와 이주의 젠더화: 결혼이주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p. 11-29.
- 국남 조-루베(2014), 「내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 이주여성」,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pp. 37-59.
- 주은우(2018), 「극영화의 역사 (다시)쓰기. <국제시장>과 <포레스트 검프>의 경우」, 『사회와 역사』 120, pp. 195-234.
- 최윤영(2020), 「‘장소’에서 ‘공간’으로 — 조성형의 고향 영화 삼부작」, 『독일

- 어문학』 22, pp. 31-52.
- _____(2008), 「Das koreanische Bild der Emigranten im Wandel」, 『독일어문화권연구』 17, pp. 305-323.
- 한국이민사박물관 (2020), 「한국이민사박물관상실전시 — 제3전시실 — <국경을 넘어 세계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웹사이트, 인천시박물관, 2021.1.29. (<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203>).
- 토마스 휘비네트(2008), 뿌리의 집 역,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서울: 소나무.
- An, Chajo (2006), “Der lange Weg zu mir selbst”, Berner, Heike and Choi, Sun-ju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Berlin; Assoziation a, pp. 118-119.
- Beck, Ulrich (2001), “Eigenes Leben in einer entfesselten Welt”, *Die Zukunft des globalen Kapitalismus* (Hrsg. von Hutton, Will / Giddens, Anthony, übersetzt von Herkommer, Hanne *et al.*), Frankfurt a. M.: Campus, pp. 197-212.
- Berner, Heike and Choi, Sun-ju (2006),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Berlin: Assoziation a.
- Hausbacher, Eva *et al.* (Hrsg.)(2012), *Migration und Geschlechterverhältnisse*, Wiesbaden: Springer.
- Hochschild, Arlie Russel (2001), “Globale Betreuungsketten und emotionaler Mehrwert”, *Die Zukunft des globalen Kapitalismus* (Hrsg. von Hutton, Will / Giddens, Anthony, übersetzt von Herkommer, Hanne *et al.*), Frankfurt a. M., pp. 157-176.
- Weeks, John R.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Learning.

원고 접수일: 2021년 3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8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Migration, Gender and Narra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Ode to My Father* and *Endstation der Sehnsüchte*

Choi, Yun-Young*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gender through the cases of Korean miners and nurses in Germany. These two gender groups can be said to be appropriate examples to examine the so-called ‘sexual (female) face of globalization’. The relationship was first analyzed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d then the issue of representation in the film was dealt with in detail. The keywords of the analysis are migration, gender, ‘world family’, patriarchy, and autographic narrative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narrative and perspective. In conclusion, if *Ode to My Father* is a centripetal representation of migration centered on nationalism, patriarchal system, ‘normal family’, and return narrative, *Endstation der Sehnsüchte* is a transnational world family, female migration, and re-migration, and shows a centrifugal landscape.

*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